

장흥군, 2년 연속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상수관 노후시설 교체·유수율 향상 시스템 구축 정종순 군수 "주민 물 복지 실현 위해 노력 할 것"

장흥군은 지난 7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12회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시대, 효율적 물 관리 선진화 방안 및 물 기술 소개>를 주제로 환경타임즈, 환경방송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후원으로 개최됐다.

장흥군은 상수관 노후시설 교체와 유수율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253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돗물 공급 과정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

축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밀 조사 지원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4시간 긴급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안전하고 청결한 협력업체 운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물 순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물 관리 최우수기관 수상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선 및 수도사고 긴급복구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내년 주요업무 계획·신규시책 보고회

진도군이 전남 서남해안의 해양관광도시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 '2022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동진 군수 주재로 민선 7기 4년간의 역점 시책 추진성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핵심 정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내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와 군정 방향을 점검·공유했다. 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은 민선 7기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맞춤형 시책 115건을 발굴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도로·교통·문화·관광 인프라 등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 분야의 계획과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새롭게 도약하는 보배섬 진도군'이라는 명제 아래 도시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전남 서남해안의 해양관광도시로의 기틀을 다져온 성과를 토대로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동력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진도군 희망브리지 청년창업, 소규모 HACCP 시설 지원, 산지 전복판매시설 구축, 상록내대수림 체험지 조성, 감염병 집중관리 시범마을 운영, 귀농인 창업 다각화 지원 사업 등이 제시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각 부서장은 내년 진도군을 이끌 핵심 역점시책의 타당성, 주민수해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진도군은 2022년이 민선 7기 4년차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공약사업 이행을 제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군민들과 향우들이 진도군의 끊임없는 변화 의지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 7기 핵심 시책의 결실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민선 7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그간 추진해 온 현안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고천암 등 3개소 겨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 금지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운영

해남군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주요 겨울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을 원천 차단한다. 축산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철새도래지는 영암호와 고천암, 금호호 3개 지역으로, 진입차량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과 군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소독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입구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입간판, 플래카드 등도 철새도래지 인근과 주요도로변에 130개 설치해 출입 차단을 안내하고 있다.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사유를 조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지난해부터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새 이동로인 러시아, 대만 등 4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100건이 넘는 AI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철새가 남하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 등을 동원해 주 2회 이상 철새도래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사업소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AI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차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여성농업인 대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관내 고령 여성농업인에 86대 지원...안전사고 예방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이 관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형 맞춤형 영농장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상반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1대 공급에 이어 4차 추경에 1억 3천 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10월부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5대를 추가 공급한다.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는 기름 대신 전기모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류비용이 절감돼 유지비가 일반 동력차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저소음·저진동·무매연으로 운반작업이 가

능해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운반차를 구입한 모든 농업인은 사전에 작동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형전기운반차 1대 당 550만원으로 도비 15%, 군비 55%를 지원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경운기는 운전 및 조작에 어려움이 많아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소형 전기운반차 공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 허용...해수부서 수용

완도군이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만 설치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은 자동차 야영

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았었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을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완도군은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

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내 최초로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규제혁신 잘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완도=이민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